

“치매로 사랑하는 사람 잃지 않게 돕고 싶어”



(15) 전남 스타 200인 선정 최승아 씨

어려운 형편에 공부 집중할 수 있게 돼 기뻐
낮선 지역의 DGIST 선택 힘들었지만 만족
학습과 기억 저장 연관관계 연구하고 싶어

라는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소한 지
역의 DGIST라는 대학을 선택한 것에 크
게 만족하고 있다. 1학년부터 어려운 전공
이 아니라 음악, 미술 등을 다양한 학문을
배우며 과학을 알아가는데 치우침이 없도
록 해왔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
할 수 있는 세상을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
다. 지역 인재로 밝혀 학업에 매진할 수 있
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원해주시
고 지켜봐주시는 만큼 그 기대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씨는 에릭 캔들 (Eric Richard
Kandel, 1929-)이라는 미국 생물학자를
롤모델로 하고 있다. 2000년 신경세포의
전달 물질과 원리 연구를 통해 노벨상 생리
의학상을 수상했으며, “기억을 찾아서” 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장녀로서 생업 전선이 아닌 공
부를 하겠다는 저의 선택을 지지해준 어머
니께 감사합니다. 전남의 인재육성사업이
더욱 확장돼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줄 수 있는 멋진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청 구례향우회, 500만원 상당 ‘구호물품’ 전달



전남도청 구례향우회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향 주민들을 위해 500만원 상
당의 북구 지원물품을 최근 구례군에 전달했다. 지원물품은 밥솥, 프라이팬 등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집중호우에 가옥이 물에 잠겨 가재도구가 못쓰게 된
주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도청 구례향우회는 도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수해로 생활고에 직면한 고향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에 따라 그동안 적립된 회
비를 기꺼이 고향에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광동 전남도청 구례향우회장(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상
황에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며 “구
례5일장을 찾아 두 차례 북구활동 지원을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향우회
원들의 위로와 작은 성원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은주 광주국세청 조사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오은주(오른쪽에서 네 번째)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국세청의 ‘적극행
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지방청·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접수, 최우수 1명과 우수 3명, 장려 5명 등 총 9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오 조사관은 지역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극 안
내해 55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7000만원가량 근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코로나19 의료진의 땀방울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동구보건소에 감사 편지 잇따라

광주 동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학생·주민들의 편지가 잇따라 전달됐다.

지난달 한 조선대 재학생이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편지와 간식거리를 전
달했다. 편지에는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항상 기억하겠습
니다”는 감사의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지난 6월에도 간호사를 꿈꾸는 조대부고
‘119소년단’ 동아리 학생들이 방문했다. 이
들은 의료진들에게 편지와 직접 마련한 도
시락을 전달했다.

주민들의 격려는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이
어졌다. 주민들이 음료수와 쪽지를 조용히



지난달 광주시각화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등이 동구청 선별진료소 앞에서 펼친 응원 퍼포먼스(왼쪽)와 조선대 학생이 쓴 응원 편지.
(동구청 제공)

전해주고 가거나, 타 자치구에 거주하는 학
생들이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찾아와 퍼포
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
운 이 시점에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가 선별
진료소 의료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면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역사회 감
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45 팔도방송 스페셜(재)	35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 민주당〉	10 좋은아침
⑩	00 시사기획 창(재) 55 UHD 숨터(재)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 민주당〉 50 숨터(재)	50 기본 좋은 날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50 SBS 뉴스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성여정(재)	00 그놈이 그놈이다(재)	50 백파더 요린이 레시피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빠리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5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재)
⑬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쇼케이스 50 안녕 우리말 55 UHD 숨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다큐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⑮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⑯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포비덴리(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⑰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란일이(재)
⑱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남자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⑳	30 기막힌 유산	30 퀴즈 위의 아이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특선다큐 스파이 아생 대탐험(재)	30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움 건 싫어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㉒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35 개는 훌륭하다	40 백파더 확장판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통합뉴스룸 ET(재)	05 나 혼자 산다 스피노프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스페셜 25 MBC네트워크특선	30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히어로 씨클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e	19:45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07:45 꼬마하어로 슈퍼액	13:00 EBS 다크프라임	20:35 경이로운 지구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숨은남미 찾기-다이내믹 에라도르〉
08:30 뽀로로 동화나라	14:45 레이디버그	21:30 한국기행 〈아이 러브 춘집 1부 사랑이 꽃피는 집〉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머털도사	21:50 EBS 다크프라임
09:00 픽시	16:15 최고대! 호기심딱지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와 해오	23:50 클래스e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4:20 지식채널e
10:30 한국기행(재)	17:20 아웅명명 귀여워2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로빈 후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7일 (음 7월 20일 癸丑)

<p>36년생 손질해야 할 것들이 많으리라. 48년생 발견일이 가깝지 않겠다. 60년생 차차 증폭되는 양태라는 것을 알고 차분하면서도 완벽하게 대응해야 하리라. 72년생 금금증이 명백하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84년생 큰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생 집착할수록 손해이니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58</p>	<p>42년생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니 편하게 이해해 된다. 54년생 대체적인 흐름은 양호하나 작은 결함도 보인다. 66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환의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78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마당이다. 90년생 볼수록 가관이요. 02년생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행운의 숫자 : 29, 73</p>
<p>37년생 분의 아니게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49년생 중요한 것을 다루게 될 것이니 실수 없어야겠다. 61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73년생 진원지는 가까운 곳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85년생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97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다. 행운의 숫자 : 24, 51</p>	<p>31년생 풍족으로 진행 했을 때 능력이 극대화 될 것이나. 43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빠르다. 55년생 멀리서부터 길성이 비춰오니 만사여의하리라. 67년생 호기심의 감정을 다하는 비밀이 보인다. 79년생 감정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되자. 91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추후도 변경하려 들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5, 84</p>
<p>38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50년생 사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2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74년생 계속될 것이다. 86년생 하나의 조치로 여러 가지를 이루리라. 98년생 풀면이 울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행운의 숫자 : 97, 63</p>	<p>32년생 구색을 갖추다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어진다. 44년생 정당한다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56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68년생 아슬아슬하게 봉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 80년생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92년생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면 결실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72</p>
<p>39년생 사실만으로써 대하자. 51년생 공중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63년생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75년생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만사가 틀어지리라. 87년생 자신과 무관한 일에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99년생 특별한 일을 당하거나 목도하여서 말하고 싶겠지만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3, 54</p>	<p>33년생 간담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45년생 가까스로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다. 57년생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서 충격이 클 수다. 69년생 아무리 정이 들었다하더라도 해독은 것과 결별해야 한다. 81년생 현재에 국한 시키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93년생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 알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1, 50</p>
<p>40년생 형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용이하다. 52년생 어떠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확실한 주관을 갖자. 64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내야 한다. 76년생 변수를 보일 수 있는 판도이다. 88년생 가까운 이들의 평을 되새겨 보면 유익할 것이다. 00년생 상대를 위해서는 자세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6, 81</p>	<p>34년생 반복해서 조금씩 지면되는 위상이다. 46년생 문혀 버릴 뻔한 사실이 드러난다. 58년생 소비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된다. 70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82년생 활용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무의미하다. 94년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93</p>
<p>41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옳다. 53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65년생 충동적인 조처라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아. 77년생 동시 다발적으로 속출하여 당황할 수 있다. 89년생 변하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01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에 서둘러서 예를 먹겠다. 행운의 숫자 : 05, 75</p>	<p>35년생 중요한 일이므로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47년생 학습고대 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59년생 지난 일에 얽매었다면 동력이 약화 되리라. 71년생 부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83년생 흥왕의 기운이 넘치니 즐거운 일이 겹칠 수 있다. 95년생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4, 70</p>